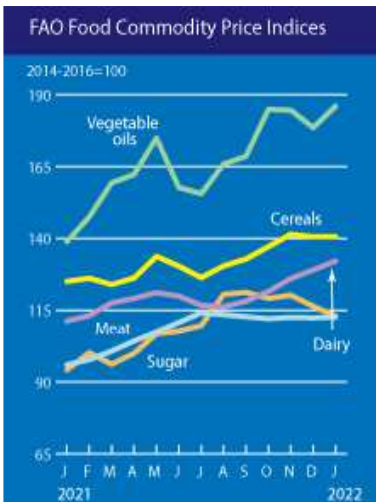




[시장동향] FAO 유제품 지수 2.4% 오르며 5회 연속 상승

- 식품가격지수도 1.1% 오르며 재반등



지난 1월 FAO의 유제품 가격지수는 132.1포인트로 전월대비 2.4% 오르며 5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18.7%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서유럽을 비롯한 주요 원유생산국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수출 재고가 빠듯함에 따라 유제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의 원유 생산량도 계속해서 평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난 심화로 원유 가공 및 유통에도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하락했던 FAO 식품가격지수도 135.7포인트로 전월대비 1.1% 상승하며 재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가격은 2회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제품 및 유지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ao.org, 2월 3일자 >

[우유급식] 美 뉴욕시, 유제품 및 육류 제외한 채식급식 실시

- 매주 금요일 식물성 요리로 대체...FDA 식단지침에 따라 우유 공급은 유지



미국 뉴욕시에서 매주 금요일 유제품과 육류를 제외한 채식급식이 실시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애덤스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건강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학기부터 매주 금요일 교내 급식에서 맥앤치즈 등 유제품과 육류를 제외하고 채소 타코 등 식물성 요리로 대체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국(FDA)의 식단지침에 따라 우유는 계속해서 제공하고, 시행 초기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동안 소량의 유제품을 공급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참고로 뉴욕시 교육부는 이미 매주 월요일 육류를 급식에서 제외한바 있으며, 이번 학기부터 유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nypost.com, 2월 3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